

스페인어 기상동사(meteorological verbs)의 주어에 관한 연구*

정 원 석
경희대학교

정원석(2018), 「스페인어 기상동사(meteorological verbs)의 주어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183-215.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논항주어를 통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상동사는 일반적으로 비인칭으로 간주되나 시간 또는 공간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주어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성문법에서는 특히 기상동사를 비롯한 비인칭 동사들이 나타난 구문의 주어를 허사로 판단하여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에서는 공범주 허사 pro를 주어위치에 설정하여 절(clause) 구조의 필수요건인 확대투사원리를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허사 pro의 설정은 기상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주어 명사구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준논항(quasi-argumental) pro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본다. 또한 스페인어 기상동사와 여타 비대격 동사와의 통사적 유사성을 근거로 기상동사의 논항구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기상동사, 주어, 비대격 동사, 논항구조, 동족목적어

* 본고의 논의내용의 전개, 발전 및 개선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I. 들어가며

스페인어 전통문법에서는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동사(meteorological verbs)(이하 기상동사라 칭함)는 비인칭(impersonal)으로 간주되었으며, 시간 또는 공간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Bello 1847/1981).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상동사 구문에서는 지시성(referentiality)을 가진 부사(구)가 동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1a) 또한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구가 동사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1b).

- (1) a. Aquí llueve.
b. Llovió piedras.

먼저 (1b) 예문의 경우 명사구 ‘piedras’는 동사와의 수일치를 통해서 주어로 쉽게 판단될 수 있지만, (1a) 예문의 경우 부사 ‘aquí’는 품사상 수와 관련된 자질이 본질적으로 부재함으로 인해 주어로 판단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¹⁾ 그

1)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에서 동사와 수일치를 하는 명사구를 문법적 주어로 간주한다. 하지만 익명의 논평자의 따르면, (논평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은 복수 후치명사구 구문에서 단수일치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예문은 모두 논평자로부터 인용한 것임).

(i) a. {*Llovió/Llovieron} críticas.
b. {Llovió/Llovieron} piedras.

위의 두 예문들이 보이는 차이점에 관한 하나의 견해로 Roldán(2000, 103)은 은유적 용법으로 쓰인 기상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ib)와 같은 구체적인 일반명사구보다 (ia)의 críticas 또는 problemas나 desgracias와 같은 추상명사구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명사구들의 경우 단수일치는 (ia)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ii) a. {*Llovió/Llovieron} problemas.
b. {*Llovió/Llovieron} desgracias.

하지만 필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 화자들은 (ib) (또는 (ii))와 유사한 (iii)와 같은 예문들에서는 동사와의 단수일치가 문법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iii) a. {*Nevó/Nevaron} patos.
b. {*Granizaba/Granizaban} meteoritos.

Bello(1847/1981, 239)에 따르면, “Dijose <llovió piedras>”와 같은 은유적 문장은 비인칭은 유지한 채 동사에 대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 이를 생성문법학적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비인칭 llover 동사가 대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타동사로 간

러나 Fernández-Soriano(1999)가 제시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면, (1a)에 나타난 ‘aquí’ 역시 주어 또는 적어도 주어위치에 자리한 요소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먼저 아래 제시된 예문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2b)의 전형적인 스페인어 주어인상(subject raising) 구문에 발생하는 논항이동(A-movement)이 (3b)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3)의 예문에서 ‘allí’와 같은 부사 역시 종속절의 본래 위치에서 주절의 주어위치인 시제구의 지정어(specifier)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인상 구문을 형성한다.²⁾

- (2) a. Parece que Juan está enfermo.
b. Juani parece [ti estar enfermo].

Fábregas(2014, 3)

- (3) a. Parece que allí ha llovido mucho.
b. Allí parece [ti haber llovido mucho].

Fábregas(2014, 3)

또한 (4a)에 나타난 처소(locative)구와 유사하게, (4b)의 기상동사 ‘llover’에 나타난 부사 ‘allí’ 역시 전역이동(Across-The-Board-Movement)이라는 통사적 기제를 사용하여 유사분열(pseudo-clefting) 구문으로의 형성이 가능하다.³⁾

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ib)(또는 (ii))와 (iii)의 차이점을 원어민 화자들 간에 일종의 수용성 차이로 추정할 뿐 후자에 나타난 단수일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도록 한다.

2) (b)-예문들에 나타난 이동과정에 대한 표기는 필자의 것임. 생생문법에서 많은 학자들은 (2b)의 예문에서 일어나는 명사구의 논항이동은 격(Case)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형동사를 포함한 종속절의 시제구의 핵 T는 결여된(defective) 형태로 간주되어 주격을 명사구에 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절의 T로부터 격을 받기 위해 해당 명사구는 논항이동을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의문점은 과연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을 (3b)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부사는 격이 따라 필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논항이동으로 간주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흥미로운 문제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3)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게 (4b)의 예문은 완벽한 정문으로 판단된다. 각 예문에 나타난 이동과정에 대한 표기는 필자의 것임. (4)와 같은 예문들에 대해, Shim(2009)

- (4) a. [En Barcelona]_i es donde [t_i llueve mucho en primavera y t_i hace calor en verano].

Fábregas(2014, 7)

- b. Allí es donde [t_i llueve mucho en primavera y t_i hace calor en verano].

(필자의 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소구와 부사 ‘allí’ 모두 의문사 의문문과 같은 도치(inversion)를 요구하는 통사적 환경에서 전형적인 주어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에 뒤를 이어 본동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예문 (5a)는 Fábregas(2014, 7)에서 인용함).⁴⁾

- (5) a. ¿Cómo puede en Barcelona llover tanto?

Fábregas(2014, 7)

- b. ¿Cómo puede allí llover tanto?

(필자의 예문)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1a)에 나타난 부사는 주어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사주어가 기상동사의 의미적 또는 범주적 선택으로 인해 동사구의 보충어(complement) 위치에 처소구의 형태로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어위치, 즉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base-generation)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물론 이와 같은 통사부 도출과정에서의 생성위치와 관련된 의문점은 앞서 언급한 부사가 주어라는 가정 하에서 제기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주어가 과연 통사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스페인어

은 스페인어에서 분열구문이라 일컫는 예문들은 모두 유사분열 구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의 이를 추가적인 논의 없이 받아들여 유사분열 구문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4)의 예문들이 분열 구문인지 유사분열 구문인지는 본문에서 다루는 논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5b)의 예문은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게 완벽한 정문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예문에서 도치현상은 스페인어 의문사 의문문 형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주어-동사 도치의 양상으로 보인다.

기상동사의 주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3장에서 기상동사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s)의 여러 주목할 만한 특성들을 통해 두 동사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4장에서는 필자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분석을 제안해 보며 그에 따른 몇 가지 결과들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남은 과제들을 제시한다.

II. 기존분석들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주어에 관한 현재까지의 문헌에는 여러 종류의 분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행해진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만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토대로 보면, 대체로 생성문법에서 기상동사의 주어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공범주로의 분석

생성문법의 지배결속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상동사를 분석한다. 스페인어 기상동사는 공범주 형태의 허사(expletive)를 주어로 가지며(5a), 영어(5b) 그리고 프랑스어(5c) 기상동사 구문들에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허사주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즉, 기상동사는 주어위치에 일종의 대명사적(pronominal)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a. $\text{pro}_{\text{expletive}}$ llueve.
- b. *(It) rains.
- c. *(Il) pleut.

(5)에 나타난 허사들은 그 실현방식이 외현적이든 아니면 내현적이든 간에 동사의 어떠한 논항으로서의 지위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또한 제대로 된 의미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즉, 허사는 그 정의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개체나 개체의 특성도 나타내지도 않는다. 이러한 허

사의 본질적 특성은 스페인어를 포함한 여러 영주어 언어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시적 의미를 수반한 *pro*_{referential}(이하 지시 *pro*)와는 확연히 구분된다(Chomsky 1981; Rizzi 1982; 1986; Suñer 1983; Jaeggli 1986; Jaeggli and Safir 1989). 생성문법에서는 보통 허사 *pro*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인칭 구문들의 주어위치에 설정한다.

- (6) a. *pro*_{expletive} parece que Luis llegará tarde.
- b. *pro*_{expletive} es necesario que vengas.
- c. *pro*_{expletive} nevó ayer.
- d. *pro*_{expletive} hace sol.

Bosque and Gutiérrez-Rexach(2009, 357)

이와 같은 허사 *pro*의 이론적 설정배경에는 Chomsky(1981) 이후 많은 생성문법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확대투사원리(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EPP))라는 개념이 있다. 확대투사원리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며 절(clause)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5a)와 (6)의 예문들에 도입된 허사 *pro*는 앞서 언급한 확대투사원리에 부합하는 하나의 이론적 장치로 볼 수 있다. Chomsky(1995) 이후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기상동사에 출현하는 허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사구 상위에 투사된 시제구의 핵 T가 가진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어에서는 허사 'it'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허사 *pro*가 주어위치인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⁵⁾

5) 여기서 특이한 점은 허사는 그것이 *pro*이든 *it*이든 간에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삽입되어, 다시 말하면, 기저 생성되어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성문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즉, 동사구내부주어가설에 따르면, 한 문장에서 주어 명사구는 동사구 내부, 구체적으로 경동사구(vP)의 지정어 위치에서 처음으로 생성되어 이동이라는 연산기제를 통해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 (7) [TP pro_{expletive}/it [T' T_[EPP] [vP llover/rains]]]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식화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의문점은 과연 허사가 동사로부터 선택된 논항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왜냐하면 허사는 다른 주어 명사구들과 달리 어떠한 특별한 이동장치 없이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직접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Chomsky(1981)에 따르면, 기상이라는 개념은 허사가 아니라 준논항(quasi-argument)이라 간주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주절에 나타난 기상동사의 허사주어가 부가어(adjunct)에 나타난 원형동사의 주어 PRO를 결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Rizzi 1982; 1986).

- (8) a. It_i rained for days without PRO_i stopping.
b. pro_i llueve sin PRO_i parar.

오직 논항만이, 정확히 말하면 논항위치에 있는 명사구만이 결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8)에 제시된 예문들에서 허사 'it' 과 허사 pro는 모두 주절의 기상동사의 논항 또는 논항의 지위를 가진 요소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비인칭 구문의 허사주어는 (9)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부가어의 주어 PRO를 결속할 수 없다.

- (9) a. *It_i is necessary without PRO_i stopping.
b. *pro_i es necesario sin PRO_i parar.

지배결속이론에서 공범주 pro의 종류에 관한 Rizzi(1986)의 전형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기상동사에 나타난 허사 pro는 오직 수와 관련된 자질만을 가진 일종의 결여된 형태의 대명사적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영주어 위치에 설정되는 인칭, 성, 그리고 수와 관련된 자질을 완전히 갖춘 지시 pro와는 자질구성 자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⁶⁾ 물론 기상동사가 언제나 3인칭 단수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허사 pro 역시 인칭에 관한 자질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6)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Camacho(2011)를 참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Vangsnes 2002).⁷⁾ 하지만 이와 같은 3인칭 단수가 적어도 스페인어에서는 동사와의 수일치가 자동으로(by default) 실현된 형태로 본다면 허사 pro에는 인칭과 관련된 자질이 완전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스페인어의 기상동사에서 허사 pro주어가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야만 하는 이론적 이유는 다름이 아닌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위치에 나타난 허사 pro주어는 명사구 주어 또는 지시 pro주어와 같은 논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허사 pro분석으로 기상동사의 주어를 설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만약 스페인어를 비롯한 많은 영주어 언어들에서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주어 명사구 또는 주어 역할을 하는 구, 즉 주어 상당어구(subject-like phrases)를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기상동사 구문의 도출과정상 마지막에 도입되는 허사 pro주어는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Jelinek(1984), Barbosa(1995; 2009), 그리고 Alexiadou and Anagnostopoulou(1998)와 같은 학자들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리고 그리스어 등과 같은 영주어 언어들에서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은 명사구 이동이 아닌 (오직)동사이동으로 만족된다고 주장한다.⁸⁾ 특히 이러한 동사이동을 통한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시키는 가설은 스페인어를 비롯한 영주어 언어들에 나타나는 후치주어 구문의 도출과정을 허사 (또는 지시) pro라는 이론적 기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도

7) 이러한 관점에 (1b)의 예문에 살펴본 은유적 표현에 쓰인 기상동사 구문은 예외로 한다.

8)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Alexiadou and Anagnostopoulou(1998)는 스페인어와 그리스어에서는 T의 지정어 위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즉, 명사구 이동으로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된 영주어 언어들에서는 T는 애초에 지정어 위치를 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다음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페인어 후치주어 구문들을 도출한 예들이다(10).⁹⁾

- (10) a. [TP [T Viene_i [vP Juan [vP t_i a la reunión]]]]
 b. [TP [T Compró_i [vP Juan [vP t_i una manzana]]]].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령 기상동사 ‘llover’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어렵지 않게 도출구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¹⁰⁾

- (11) [TP [T llovió_i [vP mucho [vP [vP t_i]]]]]

만일 이러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닌다면 스페인어 기상동사에 굳이 별도로 허사 pro를 설정해야 하는 이론적 (또는 경험적) 근거는 미미해 질 것이다. (11)에 제시된 구조에서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결국 기상동사는 논항이 없는 동사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장으로 잠시 미루도록 한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항생성과 논항의 지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에 대한 불일치를 들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8b)의 예문을 통해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주어로 도입된 허사 pro가 마치 논항처럼 부가어에 나타난 PRO를 결속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즉 허사 pro가 동사구 외부의 어느 위치에서 삽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통사부에 도입되어 논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항구조의 생성과 의미역(thematic role) 부여와 관련해서 상당히 드문 경우로 필자의 견해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쉬운 일이 아니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타동구문에서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은 동사구 내부에서 생성

9) 스페인어 후치주어 구문들에서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 pro를 도입하는 분석으로는 김준한(2004)를 참고.

10) 논의의 편의상 양화부사 ‘mucho’는 경동사구에 부가되어 통사부에 도입된다고 가정한다.

되어 동사 또는 경동사(light verb)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으며 통사부에 도입된다고 주장되어 현재까지 생성문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약 기상동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별도로 논항구조와 관련된 설명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교대상의 내재적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pro에 내재된 “허사”라는 개념과 “의미역”은 확실히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연 허사 pro주어가 어떤 의미역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부여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 시공간논항으로의 분석

Fábregas(2014)는 스페인어 기상동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학자에 따르면, ‘llover/nevar/granizar’와 같은 기상동사는 ‘amanecer/anocheecer’와 같은 기상동사와 여러 의미적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한다.

첫째, 예문 (12a)의 ‘amanecer/anocheecer’ 동사에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들이 ‘날이 밝아오는/저무는’과 같은 동작이 일어난 시간 또는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예문 (12b)의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 쓰인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은 ‘비가/눈이/우박이 내리는’ 동작 자체에 관한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특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 (12) a. Amaneció/anoheció {nublado/soleado/llovioso/frío}.
b. Llovía/nevaba/granizaba {recio/racheado/ligero/duro}.

둘째, ‘amanecer/anocheecer’ 동사와는 달리 (13a)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동작의 발생 시기와 관련된 명사구를 주어로 허용하지 않는다(13b).

- (13) a. El día {amaneció cálido/anoheció frío}.
b. *El día {llovió/nevó/granizó} recio.

대신에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 은유적으로 화자가 묘사하는 ‘비가/눈이/우

박이 내리는’ 동작의 주체(entity)가 주어 명사구로 나타날 수가 있다(14).¹¹⁾

- (14) a. Llovieron piedras.
- b. Nevaron patos.
- c. Granizaban meteoritos.

하지만 이러한 명사구들은 통사적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해당 명사구들은 동사 뒤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15a) 오직 부정관사와 결합한 명사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정사를 동반한 명사구들에만 한해서 허용될 뿐이다(15b-c).

- (15) a. *Unas piedras llovieron.
 (cf. Llovieron unas piedras)
- b. Llovieron las piedras.
- c. Llovieron las piedras que ves allí.

물론 다음과 같이 정관사와 결합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정사를 동반한 명사구도 주어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오직 ‘내리는’ 양(quantity)과 관련된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할 뿐 ‘내리는’ 주체 자체에 대한 어떠한 지시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 (16) Llovió justo el agua que predijo el meteorólogo.

넷째, ‘amanecer/anoecer’ 동사에 나타난 주어 명사구는 앞서 언급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과 성수일치를 하지만(17)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그렇지가 못하다(18).

- (17) a. La mañana amaneció nublada.
- b. Todos los tres de junio amanecen lluviosos.

11) 후에 IV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Fábregas의 관점은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 관한 필자의 관점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 (18) a. #Llovían piedras recias.
b. *Llovían meteoritos racheados.

Fábregas에 따르면, 위와 같은 대조를 통해 ‘amanecer/anocheecer’ 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 나타난 수식어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형용사들이라기보다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부사들(adjectival adverbs)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칭주어를 허용하는지와 관련해서도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amanecer/anocheecer’ 동사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20)의 예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amanecer/anocheecer’ 동사는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달리 인칭주어와 수일치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 (19) a. *Lloviste.
b. *Nevamos.
- (20) a. Todos amanecisteis enfermos aquel día.
b. Anochecí borracho, como todos los viernes.
c. Hoy he amanecido a las tres.
d. En cuanto amanezco, me voy a correr.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통해 Fábregas는 스페인어 기상동사는 두 종류로 나뉘며 서로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Fábregas는 Harley(1995), Borer(2005), Folli and Harley(2007), Ramchand(2008)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발전된 신구조주의(neo-constructionist)적 접근법을 토대로 스페인어 기상동사를 분석한다. 신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라 동사구의 내부구조를 분석해 보면, 동사의 하위사건(subevent)들이 통사구조에서 특정한 기능핵들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시작(initiator), 과정(process), 그리고 결과(result),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하위사건들의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사구조상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핵에 나타난다. 이러한 동사구에 관한 Fábregas의 신

구조주의적 분석에 따르면, ‘amanecer/anochece’ 동사는 (21)과 같이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작의 사건에 해당하는 기능구의 지정어 위치에 시공간논항(space-temporal argument)이 생성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외부논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시작부에 해당하는 기능구가 부재한 (2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21) [InitiatorP Space-temporal argument [ProcessP ...]]

(22) [ProcessP [Proc' Proc N]]

이 두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점, 즉 외부논항이 시작의 하위사건에 해당하는 구의 지정어 위치에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예문 (13)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즉,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시작부분에 해당하는 기능구가 부재하므로 시공간논항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서술적 형용사와의 성수일치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기상동사들은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의 위치에 명사구를 가진다. 즉, (22)의 구조에서 나타나듯이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과정의 사건에 해당하는 기능구의 보충어 위치에 생성되는 명사구를 논항으로 가진다. 비록 Fábregas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결과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22)의 구조를 가진 기상동사 ‘llover/nevar/granizar’는 일종의 비대격 동사로서 어렵지 않게 비대격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 통해 살펴본 바로는 스페인어 기상동사에 대한 Fábregas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amanecer/anochece’ 동사는 타동(transitive)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자동(intransitive)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자동구조를 가진 ‘llover/nevar/granizar’ 동사가 여타 비대격 동사들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III. 기상동사 llover/nevar/granizar와 비대격 동사

Permutter(1978) 그리고 Burzio(1981; 1986)와 같은 학자들의 분류법에 따르면, 논항을 오직 하나만 가진 동사, 즉 1항동사(monovalent verbs)는 크게 비대격 동사와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s)로 구분된다.¹²⁾ 이 장에서는 'llegar/aparecer/desaparecer'와 같이 널리 알려진 비대격 동사류와 'llover/nevar/granizar' 동사류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후자가 Fábregas의 분석결과인 (22)의 통사구조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

전통문법에서부터 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비대격 동사에 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러한 동사들은 주어가 참여하는 과정(process)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대격 동사의 주어는 일종의 수동(passive)논항으로 의미적으로는 목적어에 해당되지만 통사적으로는 주어의 기능을 한다고 간주된다. 이를 고려할 때,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 나타난 명사구가 내부논항인지 아니면 외부논항인지 따라 위의 동사들이 비대격 동사인지는 아니면 비능격 동사인지는 구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Roldán(2000)에 자세히 논의된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비대격 동사의 비교를 통해 I의 2에서 살펴본 비대격 구조를 실제로 'llover/nevar/granizar' 동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Roldán(2000)에서 제시된 여러 의미·통사·형태적으로 대조되는 측면들 중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비대격 동사는 절대 구문(absolute constructions)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¹³⁾

12) Levin and Rappaport(1995)와 Mendikoetxea(1999)에 따르면, 비대격 동사 역시 상태변화와 위치 그리고 존재와 출현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에서의 펼쳐질 논의 전개는 이러한 이분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생략한다.

13) 아래의 Bello(1847/1981)의 예문들을 역시 비대격 동사가 절대 구문에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 a. Idos ellos, terminó la función.
b. Llegada la noticia, se esparció una alarma general.
c. Nacido el Salvador del mundo, fueron a adolarle los pastores.
d. Muerto Carlomagno, se disolvió el gran imperio.

- (23) a. Llegado Juan, empezamos el trabajo.
- b. Nacidas las malas hierbas, Juan las arrancó.
- c. Pasadas las diez de la mañana.
- d. Caído como estaba en el suelo.

Roldán(2000, 89)

- (24) a. Llovida una gran cantidad de agua, se arruinaron todas las cosechas.
- b. Llovido un furete granizo, Juan salió a comprobar los destrozos.

Roldán(2000, 90)

Bosque(1990)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와 같은 절대 구문에서 비대격 동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비정형절(non-finite clause)을 형성할 수가 있다(25)(Bosque and Gutiérrez-Rexach 2009). 또한 Roldán은 이와 같은 특성이 (26)의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분히 비대격 동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5) a. Una persona llegada de lejos.
- b. Un regalo caído del cielo.
- c. Las noticias ocurridas.
- d. Los paquetes llegados hoy.

Roldán(2000, 91)

- (26) a. Un regalo llovido del cielo.
- b. La cantidad de agua llovida hoy.
- c. Lo llovido.

Roldán(2000, 91)

둘째, Roldán은 Bosque(1990)에서 언급된 상(aspect)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와는 반대로,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비능격 동사는 절대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 (ii) a. *Corridos cien metros los estudiantes, se agotaron.
- b. *Bailado salsa Juan, se besó con María.

‘acabar de’와 결합하여 복합동사(complex verb)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비대격 동사의 또 다른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27c). 이와 같은 특성은 (27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동사에서도 역시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27c)의 순수 자동사 또는 비능격 동사는 ‘acabar de’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형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28).

- (27) a. Noticias acabadas de llegar.
b. *Un niño acabado de gritar.
c. Un libro acabado de traducir.

Roldán(2000, 91)

- (28) Agua acabada de llover.

Roldán(2000, 91)

셋째, Torrego(1989)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었듯이 스페인어 비대격 동사에서는 동사 뒤에 무관사 복수명사구(bare plural NPs)를 허용한다(29a). 마찬가지로 ‘llover/nevar/granizar’ 동사 역시 해당 위치에 무관사 복수명사구를 허용할 수 있다(29b).¹⁴⁾

- (29) a. Crecen hierbajos/mueren niños/faltan estímulos.
b. Llueven piedras.

Roldán(2000, 92)

넷째, Bosque(1990)의 관찰에 따르면, 비능격 동사와 달리(30a) 비대격 동사는 3인칭 복수 비인칭 용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30b). 이와 마찬가지로

14) 물론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적지 않은 타동사들도 역시 동일한 위치에 무관사 복수명사구를 허용할 수 있다.

(i) a. Compré libros que estaban de oferta.
b. Estamos aquí para ver pájaros y fotografiarlos.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스페인어 무관사 복수명사구의 통사적 분석은 Lee M-K(2008)를 참조.

‘llover/nevar/granizar’ 동사 역시 이러한 용법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31).

- (30) a. En este bar gritan mucho [Impersonal]
b. *Siempre llegan tarde [Impersonal]

Roldán(2000, 93)

- (31) *Llueven con fuerza [Impersonal]

Roldán(2000, 93)

다섯째, 비대격 동사에는 지시성을 담고 있지 않는 장소 또는 시간의 부사구가 나타날 수 있지만(32a), 비능격 동사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구의 출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32b).

- (32) a. {Ahi/Ahí} llegan tus amigos.
b. {??Ahi/Ahí} sonríe Pedro.

Bosque and Gutiérrez-Rexach(2009, 396)

그리고 이미 앞서 I장에 언급한 것처럼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비대격 동사와 위와 같은 특성을 전적으로 공유한다(33).

- (33) a. Sabemos que ahi llueve a cántaros.
b. Mira, ahí está lloviendo a cántaros.

마지막으로, Roldán(200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비대격 동사와 ‘llover/nevar/granizar’ 동사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아래의 예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위의 두 동사군 모두 과거 분사형 파생명사를 만들 수 있다.¹⁵⁾

15) 익명의 논평자는 nevada와 granizada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llover는 과거분사형 파생명사 llovida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 즉 la fuerte nevada obliga a suspender...와 같은 예문은 가능하지만 la fuerte llovida...는 예를 찾기 힘들고 대신에 파생명사가 쓰지 않은 la fuerte lluvia...와 같은 예문이 널리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같은 기상동사 내에서 파생명사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 (34) a. Salir → salida/llegar → llegada
 b. Nevar → nevada/granizar → granizada

Moreno Cabrera(1999)는 스페인어 비대격 동사의 경우 위에 언급한 과거 분사형 파생명사가 ‘el hecho de que’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타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이라고 한다(35).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36).

- (35) a. Verifiqué la llegada de Juan = el hecho de que Juan llegara.
 b. Verifiqué la respuesta de Juan ≠ el hecho de que Juan respondiera.

Roldán(2000, 93)

- (36) Comunicamos la lluvia de ayer = el hecho de que lloviera ayer.

Roldán(2000, 93)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스페인어 기상동사 ‘llover/nevar/granizar’는 충분히 비대격 동사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상 동사의 파생과정은 비대격 동사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비대격 동사의 논항구조와 ‘llover/nevar/granizar’ 동사의 논항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외부논항이 아닌 내부논항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다음 장에서는 ‘llover/nevar/granizar’ 동사에 관한 비대격 구조 분석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문제점들을 재고해 보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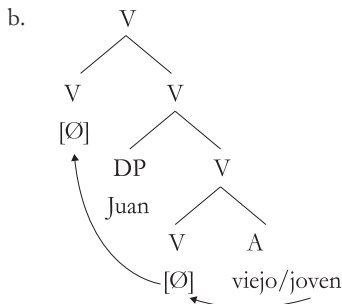
무엇일까? 필자는 llover에 비해 nevar와 granizar가 좀 더 어원화(lexicalization)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코퍼스 등을 활용해 여러 예문들을 두루 살펴야 하며 또한 통시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흥미로운 주제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IV. 비대격 기상동사와 동족목적어(cognate object)

1. 어휘통사(Lexical Syntax)와 융합(co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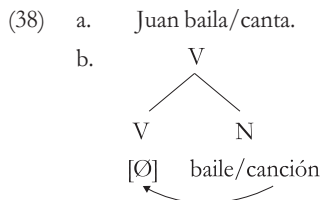
Hale and Keyser(1993; 1997; 1998; 2002)는 술어와 개별 논항들과의 관계, 즉 서술관계(predication)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어휘통사를 제안하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복합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항구조상에서 발생하는 기본 어휘들 간의 융합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¹⁶⁾ 이렇듯 어휘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융합의 과정은 통사부에서의 통합(incorporation) 또는 핵이동(head-movement)과 유사하며 차이점은 단지 연산과정이 통사부가 아니라 어휘부에서 어휘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일 뿐이다.¹⁷⁾ 또한 통사부에서의 연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어휘부 융합과정 역시 엄격한 구조적 인허환경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면, 오직 자매관계에 있는 어휘요소들 사이에만 허용되는 연산과정으로 동사의 논항구조 속에서 볼 때 오직 보충어의 핵이 보충어를 선택하는 또 다른 핵으로 융합된다. Hale and Keyser의 어휘통사에 따르면, (37a)에 나타난 비대격 동사는 (37b)와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며 동사에 의해 어휘적으로 선택된 형용사는 비어 있는 동사(empty verb)로 순차적으로 융합을 하게 된다.

(37) a. Juan envejeció/enjuveneció.



16) 'Conflation' consists in the process of copying the p-signature of the complement into the p-signature of the head, where the latter is "defective".(Hale and Keyser 2002, 63)

한편 Hale and Keyser는 (38a)에 제시된 ‘bailar/cantar’와 같은 비능격 동사는 비어 있는 동사가 명사를 동족목적어(cognate object)로 가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휘통사부에서 명사가 동사로 융합하여 최종적인 동사의 형태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38b).¹⁸⁾



2. llover/nevar/granizar 동사의 논항구조

본 논문에서는 (37)과 같은 Hale and Keyser의 어휘통사 분석에 따른 비능격 동사의 논항구조를 바탕으로 (39a)에 제시된 ‘llover/nevar/granizar’ 동사의 논항구조를 (39b)과 같이 분석하며 비능격 동사에서의 동족목적어 융합을 기상동사에 적용해 본다.¹⁹⁾

17) 이러한 관점은 분산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동사의 논항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Embick 2004). Hale and Keyser 이론의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와 같은 어휘범주들의 논항구조를 분석한 연구로는 Mateu(2002)를 참조.

18) Hale and Keyser(1993; 1997; 1998; 2002)에서는 비능격 동사의 주어는 동사구 외부에서 생성된다고 언급한다. 즉 현재까지 생성문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듯 경동사구의 지정어 위치에서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스페인어에서 다음과 같은 비능격 동사가 쓰인 구문들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i) a. Juan baila un tango.
b. María canta una canció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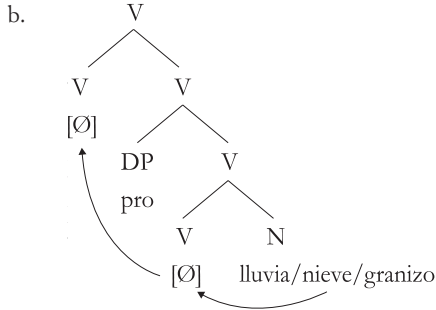
이 학자들의 어휘통사적 분석을 받아들이면, (i)에서는 비능격 동사가 실제목적어와 동족목적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과 같은 예문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Torrego(1995)와 Uriagereka(1988)가 제안한 접어 중복(clitic doubling)의 기제를 이용한 Gallego(2012)를 참조.

19)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동족목적어는 비능격 동사에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 기상동사 역시 동족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9b)에 제시된 구조에 회의적이다.

(i) a. Llovió una lluvia finita.
b. Llovía una lluvia helada.

만약 그렇다면, ‘lluvia/nieve/granizo’가 동족목적어로서 내부논항 위치에 생성되는

(39) a. Llueve/nieva/graniza.



이 구조에서 동족목적어로 분석된 명사 ‘lluvia/nieve/granizo’는 비어 있는 동사로 순차적으로 융합을 하게 되며 문장에서 실제적으로 문법적 주어 역할을 한다. (39b)에 제안된 구조는 앞서 III장에서 살펴본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비대격 동사의 유사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구조이다. 그러나 (39b)의 구조에서 DP위치에 설정한 pro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상동사 구문에 대한 허사 pro 분석을 옹호하는 기존연구들은 (39b)의 DP위치에 시공간논항 대신 pro를 상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기존분석들이 제안하는 pro의 상정이유를 (39b)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즉, (오직) T가 가진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점검 또는 만족하기 위해 pro를 상정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한다. 그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Alexiadou and Anagnostopoulou(1998)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페인어에서 T의 확대투사원리자질은 동사이동으로 만족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39b)에

(39b)의 구조는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은 (i)과 같은 예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며 동족목적어를 가진 여타 비능격 동사(예를 들면, 각주 18의 (ib))에 비해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동족목적어와 유사한 lluvia/nieve/granizo와 같은 내부논항에 위치한 명사구 및 이러한 명사구의 어휘융합 과정을 (39b)에 제시된 비대격 구조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상동사 자체에 내부논항이 내포되어 있는 어휘동사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기상동사가 비대격 구조가 아닌 비능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본고에서 필자는 단지 ‘llover/nevar/granizar’와 같은 기상동사의 내부논항이 동사에 Hale and Keyser식의 융합과정을 통해 실현된 것이라는 제안을 위한 부수적인 과정임을 밝힌다.

pro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 이는 (40)과 같은 은유적 표현을 나타내는 기상동사 구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명사구의 내현적 대응물(counterpart)의 존재에 대한 표기상의 목적일 뿐이다.

- (40) a. Llovieron piedras.
b. Nevaron patos.
c. Granizaban meteoritos.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내부논항 위치, 즉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pro를 상정해야한다는 이론적 부담감이 있어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럽 포르투갈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영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목적어 위치에는 pro를 상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허사 pro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들로 볼 때 (37b)의 구조에서 DP위치에 Juan 대신 pro를 설정할 수 있음을 들어 (39b)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37a)와 같은 비대격 동사와 (39a)의 기상동사는 명사구 주어위치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나타낸다. (41)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대격 동사의 인칭주어는 어렵지 않게 동사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41) a. (Juan) envejeció (Juan).
b. (El tren) llegó (el tren) a la estación.

이와 반대로 ‘llover/nevar/granizar’ 기상동사 구문에서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대로(cf. (15)) 주어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²⁰⁾

20) 물론 (37a)의 비대격 동사와 달리 (39a)의 기상동사들은 인칭주어를 가질 수 없다(cf. (19)). 한편 익명의 논평자에 따르면, 은유적 표현을 나타내는 기상동사 구문에서도 전치주어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예문은 논평자로부터 인용한 것임).

(i) Los aplausos llovieron.

이러한 예문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대격 동사와 기상동사의 주어위치와 관련된 차이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바는 (i)과 같은 전치주어의 예에 반해 (42b)와 같은 예문에서는 전치주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치주어의 출현 가능성은 본고에서 기상동사의 구조를 비대격 구조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반례가 아니라 오히려 전치 그리고 후치로 나타날 수 있는 주어의 특성

- (42) a. Llovieron {unas/las/Ø} piedras.
b. *{Unas/Las/Ø} piedras llovieron.

지배결속이론에서 Rizzi(1986)는 의미역과 관련하여 pro는 (43)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43b)와 (43c)에 제시된 pro에 관한 내용들이다.²¹⁾

- (43) a. 지시 pro: 완전한 의미역을 가지며 인칭과 수의 자질을 확인해야 함.
b. 준논항 pro: 준논항의 의미역을 가지며 수의 자질을 확인해야 함.
c. 허사 pro: 어떠한 의미역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확인해야 할 자질도 없음.

이러한 의미역 및 자질의 유무에 따른 pro에 대한 형식적 구분을 따를 때, (39b)에 제시된 기상동사의 구조에 나타난 pro는 (43b)와 (43c)중에 과연 어떤 것일까? 실제로 아무런 의미역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허사 pro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와 관련된 자질을 생각할 때, 오히려 준논항 pro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에 (40)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pro의 외현적 대응물은 반드시 동사와의 성수일치를 한다. 따라서 (39b)에 제시된 pro는 허사 pro라기 보다는 준논항 pro라고 볼 수 있다. Cabreado Hofherr(2006)와 같은 학자는 자연언어에서 공범주 pro는 오직 (43a)와 (43b)의 두 종류만 있으며 (43c)와 같은 허사 pro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들의 경험적 자료들로 설명한다.²²⁾ 만약 이 학자의 주장이 옳으며 이를 그

을 고려할 때 기상동사는 비능격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 언급된 기존 연구들에서 관찰된 기상동사의 주어 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다.

21) 참고로 Rizzi(1986)의 pro 인치조건은 다음과 같다.

a. formal licensing: pro is governed by Xy (where X is a governing head of type y).
b. content identification: Let X be the licensing head of an occurrence of pro: then pro has the grammatical specification of the features on X co-indexed with it. Rizzi(1986, 519-520)

대로 본 논문에 받아들인다면 (39b)와 같은 구조에서 더 이상 허사 pro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9b)에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상동사의 주어에 상정한 허사 pro와 달리 준논항 pro를 설정함으로써 동사와의 일치에 관여하는 수에 관한 자질을 가진 논항은 아니지만 논항에 가까운 요소로 분석하여 ‘llover/nevar/granizar’ 동사의 논항구조에 설정한 pro를 정당화해 본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에서 준논항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험적 자료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44)와 같은 스페인어 haber 존재구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구는 자동사,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대격 동사인 haber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된 논항은 아니지만 마치 논항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존재구문에 나타나는 처소구는 논항위치인 시제구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cf. Fernández-Soriano 1999).²³⁾

- (44) a. Hay niños en el parque.
b. Hay fiestas en mi barrio.
- (45) a. [TP En el parquei [T' hay niños tí]].
b. [TP En mi barrioi [T' hay fiestas tí]].

또한 유은정(2015)에서는 haber 존재구문에 나타난 처소구가 등위접속문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후행절에서 생략된 요소는 각각 ‘en la ceremonia’와 ‘en el lugar’이며, 두 경우 모두 선행절의 명사구 주어와 동일한 위치에서 생성되는 주어기능을 하고

22) Cabreado Hofherr(2006)는 형식자질인 인칭과 수의 유무에 따라 허사 pro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논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23) 여기서 이동과 흔적에 대한 표기는 오직 설명적 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처소구가 시제구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생성 되는지 아니면 이동을 통해 자리하는지는 본문의 논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있다고 설명한다.²⁴⁾

- (46) a. La ceremonia dura diez minutos y no hay flores.
b. El lugar está lleno y no hay espacio ni para sentarse.

CREA, El Mundo(1994.11.27.), Montes(2015)

만약 위에 예문에 보이는 밑줄 친 공백이 명사구 생략(NP-ellipsis)의 일종이라면, 논항 또는 논항의 지위를 가진 명사구의 생략만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명사구 생략은 논항 명사구인 주어 또는 목적어에 관한 자료와 언급만 있을 뿐, 비논항 명사구 생략에 관한 자료에 대한 기술이나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46)의 예문은 그 자체로서 등위접속문의 후행절에 나타난 처소구의 논항지위를 확인시켜 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haber 존재구문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부정명사구가 전치주어의 형태가 아닌 후치주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47).²⁵⁾

24) 필자의 견해로는, 제시된 예문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로서 좀 더 자세히 논해 볼만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략현상에 대한 이동과 삭제(movement-plus-deletion)의 분석에는 오직 같은 범주끼리의 동일성조건(identity condition)을 사용하는데, 문장의 문법성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46)에서는 마치 선행절의 명사구와 후행절의 전치사구가 동일성조건을 어떤 식으로든 만족시킨 것처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25) 스페인어 haber 존재구문에서 (i)의 예문처럼 부정명사구가 초점 또는 강조의 형태로 전치주어에 위치에 놓일 수 있다.

(i) UN HOMBRE había en el jardín.

또한 (ii)와 같이 무관사 복수명사구의 경우 haber 존재구문에서 동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ii) Libros hay en el escritorio.

Suñer(1982), Bosque(1996) 등과 같은 학자들은 스페인어에서 무관사 복수명사구는 전치주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ii)의 예문에서 'libros'는 haber동사의 전치주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ii)와 같은 예문은 이동, 즉 전치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도출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관사 복수명사구는 다른 통사적 환경에서는 이동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i)의 무관사 복수명사구 'libros'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위치에 기저 생성되고 내부논항에 이와 동지표가 되는 pro를 상정하여 분석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후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47) a. Hay {unos niños/algunos niños/tres niños} en el parque.
 b. *{Unos niños/Algunos niños/Tres niños} hay en el parque.

이상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haber 존재구문은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어 haber 존재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에 관해 유은정(2015)은 (48)의 도식화에서 보듯이 내부논항에 위치한 명사구가 아닌 그 상위에 위치한 처소구가 시제구의 핵 T와 3인칭 단수로 자동 일치(default agreement)한다고 주장한다.

- (48) [TP [T' T [vP había_i [vP en el parque [v' t_i niños]]]]
- [3.per.sg]
[3.per.sg]
-

이와 같은 3인칭 단수형에 대한 자동 일치 기제를 받아들여, 본고에서 필자는 (39b)에 제안된 기상동사의 구조에서 동사와 자동 일치하는 요소는 (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논항이 아닌 DP위치에 있는 준논항 pro라고 제안해 본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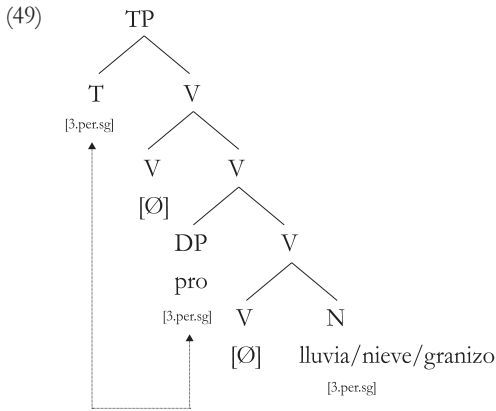
26)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부논항에 위치한 ‘luvia/nieve/granizo’ 명사는 이미 어휘통사부에서 동사로 융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49)의 구조에서 DP위치의 pro만이 자동일치 관계에 놓이는 유일한 논항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비대격 구조로 분석한 기상동사에 관해, 익명의 논평자는 (i)과 같은 Agent/Cause가 등장하는 기상동사 구문의 성격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문들은 모두 논평자로부터 인용한 것임).

- (i) a. Aristóteles nos dice que llueve Zeus, no para que el trigo crezca, sino por necesidad.
 b. El cielo llovía.
 c. El milagra hizo ll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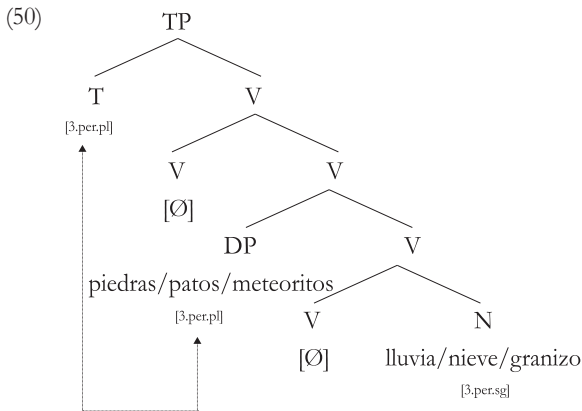
논평자는 또한 (ii)와 같이 타동사로 기능하는 기상동사 구문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ii) a. Llovieron piedras las nubes.
 b. El cielo llueve todas las desgracias.

이와 같은 예문들은 전적으로 문학적 표현들에 국한되며 (49)에 제시된 비대격 동사로의 분석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기상동사 구문이 비대격 구조가 아닌 타동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앞서 I장에서 살펴본 여러 경험적 자료들 그리고 II장에서 논의한 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i)과 (ii)에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적어도 Agent/Cause를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서 (40)의 예문들에서 본 은유적 표현을 담은 기상동사 구문에서는 (50)과 같이 (39b)의 DP위치에 있는 명사구가 시제구의 핵 T와 3인칭 복수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왜 (51)과 같은 문장들이 수용될 수 없는지를 명사구와 시

도입하는 어떠한 기능구를 (49)에 제시된 구조 위에 투사한 일종의 타동구조로 분석될 수 있으리라 추정해 보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사로서의 기상동사 구문들과는 다른 경우로 판단한다. (i)과 (ii)의 예문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도록 한다.

제구의 핵 T와의 일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부성(locality)을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 (51) a. *Llueve piedras.
 b. *Nieva patos.
 c. *Graniza meteoritos.

즉, (50)의 구조상에서 DP위치 있는 ‘piedras/patos/meteoritos’는 비어 있는 동사의 목적어 ‘lluvia/nieve/granizo’보다 시제구의 핵 T에 더 가깝기 때문에 Chomsky(2000; 2001)의 탐침(probe)과 목표(goal)의 틀에서 적합한 일치 관계에 놓이게 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동사는 3인칭 단수가 아닌 3인칭 복수의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²⁷⁾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필자의 판단으로 유사한 구문으로 고려될 수 있는 haber 존재구문과 연계하여 (39b)에 제안한 기상동사에 대한 분석 하에서 동사와의 수일치에 관한 적절한 이론적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

V. 마치며

스페인어 기상동사는 전통적으로 비인칭 구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주어의 존재 및 주어가 가지는 의미역과 관련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와는 달리 스페인어 기상동사에서는 주어의 명시적 출현이 의무적이지 않다. 생성문법에서는 스페인어 기상동사에 허사 pro주어를 상정하여 영어와 프랑스어의 명시적 허사주어와 동일한 맥락에서 분석해 왔다. 이러한 기상동사에 대한 pro를 이용한 분석의 이론적 배경은 시제구의 핵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며 pro를 주어위치에 상정함으로써 자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사 pro의 상정은 이론내적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이론적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

27) 각주 1 참조.

는 기제로 간주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어 기상동사의 주어에 관한, 특히 주어가 가진 의미역과 관련된 논항구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llover/nevar/granizar’와 같은 기상동사의 주어가 과연 통사적 관점에서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에 답해보고자 비대격 동사와의 유사성을 통해 기상동사를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Hale and Keyser(1993; 1997; 1998; 2002)의 어휘통사를 기반으로 하여, ‘llover/nevar/granizar’ 동사의 논항구조를 일련의 융합과정을 포함한 비대격 구조로 분석하였으며, 허사 pro 대신 준논항 pro를 설정함으로써 논항과 같은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기상동사의 주어에 관한 보다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llover/nevar/granizar’ 동사와 haber 존재구문의 비교를 통해서 전자에서 나타나는 성수 일치 유형을 후자에서도 역시 동일한 이론적 기제를 사용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김준한(2004), 「스페인어 후치주어 구문에 있어서 영허사(Expletivo Nulo)의 허가」, 스페인어문학, Vol. 33, pp. 87-102.
- 유은정(2015),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의 통사적 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6, No. 2, pp. 95-116.
- Alexiadou, A. and Anagnostopoulou, E.(1998), “Parametrizing AGR: Word order, v-movement and EPP-check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16, pp. 491-539.
- Barbosa, P.(1995), “Null Subjects”,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2009), “Two kinds of subject *pro*”, *Studia Linguistica*, Vol. 63, pp. 2-58.
- Bello, A.(1847/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americanos*, Tenerife,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 Borer, H.(2005), *Structuring Sense(vol. II)*. In *Name On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sque, I.(1990), “Sobre el aspecto en los adjetivos y en los participios”, I. Bosque(ed.), *Tiempo y aspecto en español*, Madrid: Cátedra, pp. 177-214.

- _____(1996), *El sustantivo sin determinación*, Madrid: Visor.
- Bosque, I. and Gutiérrez-Rexach, J.(2009),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Akal.
- Burzio, L.(1981), “Intransitive Verbs and Italian Auxiliaries”,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_____(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 and 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Cabreado Hofherr, P.(2006), “‘Arbitrary’ pro and the theory of pro-drop”, P. Ackema, et al. (eds.), *Agreement and Argu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0-258.
- Camacho, J.(2011), “Chinese-type pro in a Romance-type null-subject language”, *Lingua*, Vol. 121, No. 6, pp. 987-1008.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artin, R., Michaels, D. and Uriagereka, J.(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Cambridge, MA: MIT Press, pp. 89-155.
- _____(2001), “Derivation by Phase”, Kenstowicz, M.(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pp. 1-52.
- Embick, D.(2004), “Unaccusative syntax and verbal altern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ábregas, A.(2014), “El argumento espacio-temporal de ciertos verbos meteorológicos”, *Ianua. Revista Philologica Romanica*, Vol. 14, No. 1, pp. 1-25.
- Fernández-Soriano, O.(1999), “Two types of impersonal sentences in Spanish: Locative and dative subjects”, *Syntax*, Vol. 2, No. 2, pp. 101-140.
- Folli, R. and Harley, H.(2007), “Causation, obligation and argument structure: on the nature of little v”, *Linguistic Inquiry*, Vol. 38, No. 2, pp. 197-238.
- Gallego, A.(2012), “A note on cognate objects: Cognation as doubling”, *Nordlyd*, Vol. 39, No. 1, pp. 95-112.
- Hale, K. and Keyser, S. J.(1993), “On the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 Cambridge (Mass.): MIT Press, pp. 53-109.
- _____(1997), "The limits of argument structure", A. Mendikoetxea and M. Uribe-Etxebarria(eds.), *Theoretical Issues at the Morphology-Syntax Interface*, Bilbao: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PV, pp. 203-230.
- _____(1998), "The basic elements of argument structure", H. Harley (ed.),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32: Papers from the Upenn/MIT Roundtable on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pp. 73-118.
- _____(2002), *Prolegomenon to a theory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Harley, H.(1995), "Subjects, events and licensing", Ph.D dissertation, Cambridge, MIT.
- Jaeggli, O.(1986), "Arbitrary plural pronou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4, pp. 43-76.
- Jaeggli, O. and Safir, K.(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Osvaldo Jaeggli, and Ken J. Safir(eds.), *The Null Subject Parameter*, Dordrecht: Reidel, pp. 1-44.
- Jelinek, E.(1984), "Empty categories, case and configuration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2, pp. 39-76.
- Lee, M-K(2008), "La distribución de los SSNN escuetos del español: el rasgo-D y el Caso estructural", *Sincronia*, Summer 2008, Universidad de Guadalajara, México.
- Levin, B. and Rappaport, M.(1995), *Unaccusativity*, Cambridge(MA): MIT Press.
- Mateu, J.(2002), "Argument structure: Relational construal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Ph.D dissertation,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Mendikoetxea, A.(1999), "Construcciones inacusativas y pasivas", Ignacio Bosque and Violeta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I*, Madrid: Espasa Calpe, pp. 1575-1630.
- Moreno Cabrera, J. C.(1999), "Las funciones informativas: las perífrasis de relativo", Ignacio Bosque and Violeta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II*, Madrid: Espasa Calpe, pp. 4245-4302.
- Permuter, D.(1978),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 Holt, Rinehard and Winston.
- Ramchand, G.(2008), *First phase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1986), “Null objects in Italian and the theory of pro”, *Linguistic Inquiry*, Vol. 17, pp. 501-557.
- Roldán, A. S.(2000), “La impersonalidad de los verbos meteorológicos: una explicación pragmático-discursivo”, *DICENDA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Vol. 18, pp. 85-108.
- Shim, S-W.(2009), “Spanish does not have cleft sentences”, *Revista Iberoamericana*, Vol. 20, No. 1, pp. 285-310.
- Suñer, M.(1982), “Impersonal haber in Non Standard Spanish”,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pp. 94-107.
- (1983), *Subjects of infinitives in standard and Caribbean Spanish*,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Torrego, E.(1989), “Unergative-unaccusative alternations in Spanish”,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0, pp. 253-72.
- (1995), “On the nature of clitic doubling”, H. Campos and P. Kempchinsky (eds.), *Evolution and revolution in linguistic theory*, Washington(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399-418.
- Uriagereka, J.(1988), “On Govern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Vangsnæs, O. A.(2002), “Icelandic expletive construc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subject types”, Svenonius, P.(ed.), *Subjects, expletives and the EP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3-71.

정 원 석

경희대학교
alex-7554@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A Study on the Subject of Spanish Meteorological Verbs

Wonsuk Jung

KyungHee University

Jung, Wonsuk(2018), "A Study on the Subject of Spanish Meteorological Verb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183-215.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bject of Spanish meteorological verbs from a lexico-syntactic point of view. It has been noted that meteorological verbs are considered to be impersonal, but they involve a sort of subject which may express either time or space. In the generative literature, the subject of impersonal constructions including those with meteorological verbs has been analyzed as expletive, and in the case of a null subject language like Spanish, expletive pro has been posited in subject position, crucially to satisfy the so-called 'EPP'-feature of T. However, I argue against such postulation of expletive pro in Spanish meteorological verbs, suggesting that both overt and covert NPs in subject position should be an instance of quasi-argumental pro on the basis of syntactic as well as semantic properties of the NPs in question. Based on a number of syntactic similarities between meteorological verbs and unaccusative verbs, I also discuss the argument structure of Spanish meteorological verb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genuine subject thereof.

Key words Meteorological Verbs, Subject, Unaccusative Verbs, Argument Structure, Cognate Objects